



2026. 2. 26 (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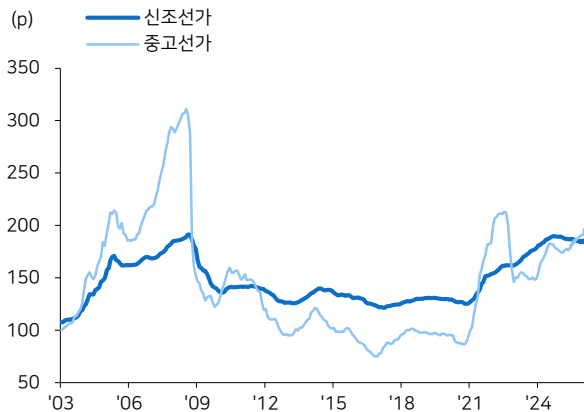
조선/기계

Analyst 배기연

kiyeon.bae@meritz.co.kr

»» 국내외 주요 지표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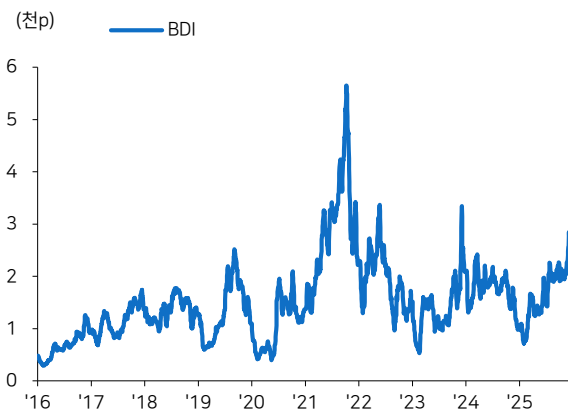
신조선가 182.7p (-0.3p W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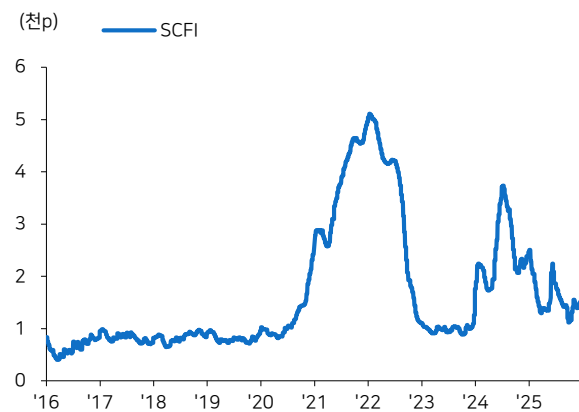
중국 내수 후판가격 (2.13 기준) 431.0달러 (+2.0p W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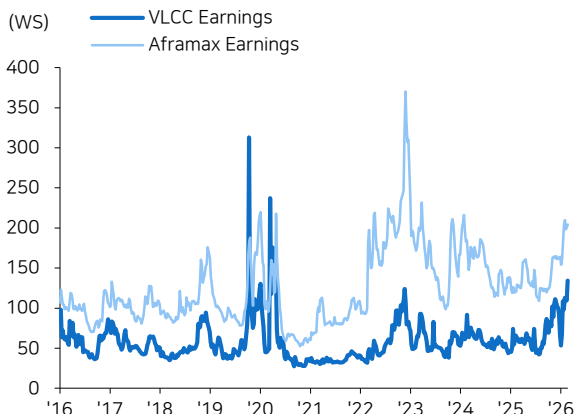
건화물운임(BDI) 2,129.0p (+17.0p Do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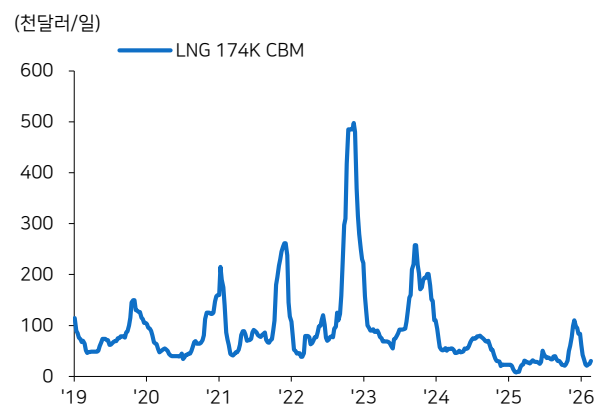
컨테이너운임(SCFI) (2.13 기준) 1,251.5p (-15.1p WoW)



VLCC Spot Rate 134.3WS (+24.6p WoW)



LNG Spot 운임 30.5천달러 (+5.5p WoW)



자료: Clarksons,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QatarEnergy awards construction contracts to boost its LNG production to 142 mtpa (TradeWinds)

<https://zrr.kr/X0vpT1>

QatarEnergy가 North Field West(NFW) 프로젝트를 통해 LNG 생산능력을 2030년대 초까지 1억4,200만 tpa로 확대하기로 하고, 1,600만 tpa 규모의 LNG 메가트레인 2기와 가스 처리·NGL 회수·헬륨 추출 설비에 대한 EPC 계약을 체결했다고 보도됨. 첫 LNG 화물은 2031년 말 생산을 목표로 하며, 하루 17만5,000배럴 상당의 콘덴세이트·에탄·LPG도 함께 생산될 예정으로 알려짐. 또한 연 110만 tpa 규모의 CCS 설비와 태양광 전력 활용을 포함해 환경 성과를 강화하는 한편, 대규모 LNG 확장을 통해 글로벌 수요 증가에 대응하겠다는 전략이라고 전해짐.

US LNG exports set to continue growth a decade after first shipment (Upstream)

<https://zrr.kr/idX4hC>

EIA에 따르면 미국 LNG 수출은 2016년 Cheniere의 Sabine Pass 첫 선적을 기점으로 본격화돼 2016년 하루 5억 입방피트에서 2025년 150억 입방피트로 급증했으며, 2031년에는 약 300억 입방피트로 두 배 확대될 전망으로 전해짐. Golden Pass, CP2, Rio Grande, Port Arthur 등 신규 터미널이 2026~2027년부터 순차 가동되면서 수출 능력이 구조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며, Cheniere 역시 2030년까지 연 7,500만 톤 규모로 증설을 추진 중이라고 보도됨.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미국 LNG의 최대 수출 시장은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이동했으며, Henry Hub 연동 및 목적지 유연성 계약 구조가 미국산 LNG 경쟁력의 핵심 요인으로 알려짐.

TotalEnergies and ExxonMobil launch Mozambique marine service bid process amid maritime security concerns (Upstream)

<https://zrr.kr/sPwAn6>

TotalEnergies와 ExxonMobil이 Mozambique LNG(연 1,300만 톤)와 Rovuma LNG(연 1,800만 톤) 프로젝트를 위해 Afungi 인근 해상 인프라를 공동 활용하는 해상 서비스 입찰을 개시했다고 보도됨. 총 8척의 예선·작업선·도선선이 필요하며, 연간 최대 380척의 LNG선과 25척의 콘덴세이트 탱커를 처리해야 하나, 카보 델가두 연안의 이슬람 반군 활동으로 해상 안보 리스크가 지속되고 있다고 전해짐. Mozambique LNG는 2029년, Rovuma LNG는 2030~2031년 가동을 목표로 하며, 현지 정부도 해군 통제 강화 및 LNG 시설 경계 보안 인력 확보에 나섰다고 알려짐.

HD 현대, 印 코친조선소와 5억 달러 합작...中·日 주도 시장 도전장 (글로벌이코노믹)

<https://zrr.kr/yqxSgm>

HD현대가 인도 코친조선소와 약 5억 달러 규모 합작 투자를 추진해 연 12만 톤 생산 능력의 선박 블록 공장을 건설하고 수에즈맥스·케이프사이즈·대형 컨테이너선을 공동 건조할 계획이며, 2026년 하반기 계약 체결이 유력하다고 보도됨. 이는 인도의 저임금과 부지를 활용해 원가를 20~30% 절감하고 중국 중심의 글로벌 조선 시장을 견제하려는 전략으로 알려짐. 다만 기술 이전 요구와 품질 관리 리스크가 존재하며, 성공 시 삼성중공업·한화오션 등 국내 조선사들의 인도 및 동남아 협력 확대 가능성도 전해짐.

한화오션 加법인 사장 "현대차, 잠수함 수주전에 수소전지 인프라 제안" (아시아경제)

<https://zrr.kr/u6Yp0r>

현대차그룹이 최대 60조 원 규모의 캐나다 초계 잠수함 프로젝트(CPSP) 수주를 위해 캐나다 내 수소연료전지 인프라 구축 방안을 제안했다고 보도됨. 한화오션 캐나다 법인 대표는 현대차가 철도·대형 화물차를 지원하는 3~4개 수소 네트워크 회랑 구축 계획을 제안했으며, 이는 대규모 투자로 이어질 수 있으나 현재는 협의 단계라고 전해짐. CPSP는 한화오션·HD현대중공업 컨소시엄과 독일 TKMS가 경쟁 중이며, 성능·가격뿐 아니라 캐나다 산업 기여(ITB)가 핵심 평가 요소로, 잠수함 유지보수 인프라 및 에너지·원전·광산 등 광범위한 산업 투자 제안이 병행되고 있다고 알려짐.

Golar LNG hangs fire on green-lighting fourth FLNG unit (TradeWinds)

<https://zrr.kr/moYgXs>

Golar LNG는 FLNG 시장의 수요가 여전히 강하다고 평가하면서도, 네 번째 FLNG 설비에 대해서는 프로젝트별 규모와 상업 조건이 충분히 성숙될 때까지 대규모 자본지출을 집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보도됨. 현재 510만 tpa는 운영 중이고 350만 tpa는 건조 중이며, 카메룬 해상의 Hilli와 모리타니아·세네갈 해상의 Gimi는 생산 목표를 초과 달성하는 등 운영 성과도 양호하다고 전해짐. 2025년 순이익과 매출이 각각 증가하며 실적이 개선된 가운데, 회사는 장기 수요 확대를 전제로 하되 재무 건전성을 유지하면서 신중하게 차기 FLNG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는 전략이라고 알려짐.

Compliance Notice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